

“집짓기 60년...이젠 나무와 대화”

산문박의 禪

대목장 정영진 씨



“쓰-옥 쓰-옥...” 대패질 소리가 매끄럽다. 종로구 윤니동 윤현궁 보수공사 현장.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를 이겨내려는 주위 작업자들의 고함을 듣지 못하는지 자그마한 체구의 노인인 대패질을 따라 묵묵히 시선을 옮기고 있다. 마치 입장에 든 노스님의 얼굴처럼 무념무상, 무표정한 모습이 다.

대목장 세명중 한사람

충남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우리나라에 단 세명뿐인 대목장중 한사람인 정영진씨(76세). 16세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을 오직 나무를 다듬고 매만지는 일에만 전념해 온 정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씨가 나무와 인연을 맺은 것은 당시 목수로 이름을 날리던 부친의 영향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조수로 따라 나서며 이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전국 각지의 짙이란 짙은 안개본데 가 없어. 그러나 자연히 스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설법도 많이 듣게 됐지. 사실 법회때 뒤 외는 거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평생을 부처님 앞에서 살아온 셈이지.”

이렇게 말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법주사, 해인사, 부석사, 불국사, 쌍계사, 화엄사, 동림사, 백련사, 상인사 등 유명사찰 외에도 전국 각지 사찰의 신축·보수공사를 위해 짙집에 머문 시간만 해도 햇수로 20년이 넘기 때문이다.

어떤 공사가 가장 인상에 남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다. 그리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다.

“법주사 팔상전과 천왕문, 금강문을 만들면서 비로소 부처님 집을 내 손으로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야.”

그 이후 절문에 들어서면 아무런 사

심없이 부처님 품속에 빠져들어 한사람의 수행승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며 갑자기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장소 별다른 가르침이 없었던 부친조차도 눈을 감으면서 인정했다는 그의 목수로서의 천재성. 그러나 정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승부근성이 오늘의 자신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작업을 끝내고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질 않잖아. 괜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그럴때마다 머리속으로 더 우아한 곡선미와 더 정교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곤 했지. 이리다보니 어떤 때는 잠을 못이루는 경우가 많고 건강을 해친적도 한 두번이 아니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어. 최고가 되고 싶었지.”

정씨는 우리의 고전건축이 몇백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간재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조상들의 세심한

정성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에서 보았듯이 요즘 건물은 너무 쉽게 헐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넘어 분노를 머금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정성과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쉽게 쉽게 하려는 사고방식과 태도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움이 얼굴 가득 서린다.

쉽게 지으면 쉽게 무너져

“요즘엔 목공일을 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대우도 시원찮고 힘이 드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 그렇지만 재래식 기술을 익히지 않은 엉터리 목수들이 신식기계를 쓰는 바람에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미가 사라져 가고 있지 아니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곤 했지. 이리다보니 어떤 때는 잠을 못이루는 경우가 많고 건강을 해친적도 한 두번이 아니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어. 최고가 되고 싶었지.”

정씨는 우리의 고전건축이 몇백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간재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조상들의 세심한

치형 대를보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정씨에게는 대목장 후계자로 지정된 동생 극진씨를 후계자가 있어 그의 기술이 전수되고 있다.

“현대식 건물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멋이 없어. 차디찬 콘크리트에 부드러운 곡선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아. 사찰이나 재래가옥을 봐. 모두가 둥글고 완만하잖아. 부모와 자식 등 사람과 사람사이의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왜 그런 짓을 모르는지 참...”

점점 메달라 가는 우리네 정서와 사실에 가는 인간성은 바로 우리 전통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정서. 그는 이미 집이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과 사람사이를 걱정하는 ‘큰마위 얼굴’을 찾는 ‘나무사람’이 돼 있었다.

한영우 기자

“부처님 집을 내 손으로” 수행하듯 정성다해 몰두 현대식 건물 사람들 마음마저 콘크리트 속으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어. 그냥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배웠지. 그럴 때마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만 했어.”

정씨가 그의 솜씨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우연한 기회다. 20세가 되던 해 경북 영주 소수서원 보수공사를 맡은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대신할 사람이 없어 발을 뚫고 구르던 서원관리소속에 부친 대신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는 당초 공기보다 빨리 완성했는데 부친의 솜씨를 능가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었을 정도로 뛰어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정씨가 지금까지 맡은 공사는 문화재 보수복원공사만 60여건에 이르게 해 이렇듯 정씨는 해인사 장경각, 아은 길지선생사당, 전남 고흥 이순신장군사당, 김유신장군제각, 법주사 팔상전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건축물들이 모두 정씨의 손에 의해 빛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스님께서는 비유해서 ‘부’와 ‘자’가 상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하루 마음 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공부 하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임순택·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염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유해서 말씀인데 줄이 있어야 염주를 꿰어서 염주라고 쓸 수 있는 것이요? 그와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줄에 얹어 꿰어놓는 줄을 꿰어 형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와 자는 그렇게 꿰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과거의 부와 현재의 자가 상봉을 해야한다, 상봉하지 않으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현재의 나를 전부인줄 알고 사는데 현재의 나를 잊게한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려고조차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번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깊이 고려해볼 점이 있을 겁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심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대신원 대령스님께서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해 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마음의 법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묘법입니다. 부와 자가 합일이 되면 그대로 자유인인데 이리 가도 하나, 저리 가도 하나니 법신 화신이 들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경소리 들으면 눈물이 쏟아져

목탁소리나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뜻도 모를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기쁘게 나가는 인근 사찰에도 못가게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미지·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우리가 사람 몸 받기까지 수억 겁을 구르면서 예서도 살아보고 저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과거에 살던 습이 있어서 잘못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놈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과거의 ‘나’는 업식으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응이 된 것이요. 불이 되면 공공 없었던 시냇물도 녹아 흐르듯이 업적이 녹는다고 해도 되지요.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한다해서 야속해 하거나 반발해서는 안됩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마음으로 통신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말없는 묘법으로 통하고 두사람 사이엔 가설이 되어있습니다.

누구하리라고도 그렇습니다만 가족끼리는 더 잘 통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말로하지 않더라도 지극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주인공!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도 당신이 하는 것이니 그렇게하

지 않는 것 또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냐! 하고 말합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면 남편 마음에도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속의 지극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분란이 일어 괴로운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얼마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난리법석을 했습디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때 회사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주원·강원 속초시 조양동)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한게 아니라 때로는 큰 파도를 치기도 합니다.

파도가 일지않고 늘 잔잔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물 속 깊숙히 사는 고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 뒤집어 놓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양식을 위에서 먹고 위에 있는 양식을 밑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지요.

또 그래야 바닷물이 뒤섞여 따뜻한 표면의 물과 찬 바닥의 물이 뒤바뀌어 서로서로 함

게 즐기며 살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서로 나눠먹으니 함께사는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교훈 아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겪으신 일도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하시기 마시고 마치 바닷물이 뒤집혀 뒷물고기 아랫물고기가 공식·공용하게 되는 이치처럼 회사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잠시도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늘 잔잔하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물은 썩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기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렇듯이 세상이치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본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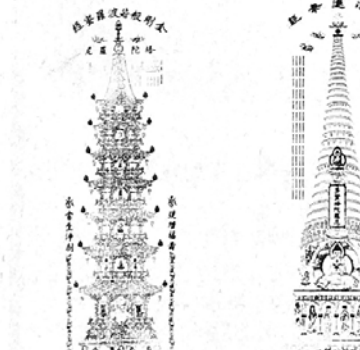
그러나 회사도 순환을 했구나 생각하셔야지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몸에서 정맥·동맥으로 피동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에 분란이 일어나서 한바탕 야단이 벌어졌다 하는 것도 이 정맥·동맥의 파동기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듯이 건강한 회사가 되기위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평소 순환이 잘 안되었던 일면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나 죽지않고 살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입 다물고 눈 지그시 감고 빙그레 웃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먹고 함께 쓰고 함께 어울려 산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祕의 佛塔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사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 62cm x (세로) 160cm

■ 상담문의: 대한불교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기가 발산되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기(氣)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영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찰에 보내드리고, 이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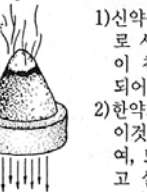
● 이 방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운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고 이 방법으로는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계의 병사환, 권법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계의 병의 및 권법파장을 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달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영이 친도되지 못하고, 이면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에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번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몰지 못하고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과 함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입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佛塔비방”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佛塔비방 소개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佛塔비방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佛塔비방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佛塔비방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佛塔비방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佛塔비방은 이런 병들을 고친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게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관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 바라밀 佛塔비방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佛塔비방을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속만을 엄선하여 佛塔비방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佛塔비방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佛塔비방을 크게 만들어 뜨겁도록 되어있다.(제재의 佛塔비방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사용으로 만든 佛塔비방을 사용하며,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써 흥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드는 佛塔비방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佛塔비방은 佛塔비방을 생기는 佛塔비방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佛塔비방에서는 佛塔비방을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피부)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들 수 있는 佛塔비방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흥터가 없이 혼자서 안전하게 환과되게 佛塔비방을 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佛塔비방건강요법

● 바라밀 佛塔비방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佛塔비방을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佛塔비방으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스님)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 864-3740
■ 서울: 경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0335) 34-9490, 39-1906 / 야간: (0342) 706-3060